

## 최인호의 「타인의 방」에 나오는 아파트

장두영\*

### 〈차 례〉

1. 서론
2. 1971년 초의 아파트
3. 경제성장과 부동산
4.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아파트
5.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대상으로 작품에 나오는 아파트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타인의 방」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아파트를 근대 도시의 전형적인 주거 형태이자 현대성의 표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71년 작품이 발표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오늘날과는 제법 큰 차이가 있었다. 아파트 보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아파트는 낯설고 새로운 주거 형태였으며 아파트의 공간 구조와 기능 또한 오늘날의 아파트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작품 속 아파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아파트인지부터 살펴보았다. 건축사 및 주거사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품 속 아파트를 서민아파트, 시민아파트, 맨션아파트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타인의 방」에 나오는 아파트는 맨션아파트라고 특정할 수 있었다. 맨션아파트는 면적, 시설 등의 면에서 기존의 아파트와 질적으로 크게 차별화되는 당시 최고급 아파트였다. 그러므로 맨션아파트를 소재로 채택한 작가는 도시인의 평균적 일상을 그리는 것과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타인의 방」은 작가 최인호가 「미개인」이라는 중편소설을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쓰게 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두 작품 간의 공통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작품은 모두 1970년 부동산 열풍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작가가 맨션아파트를 소재로 한 것은 1970년대 초반 물질주의의 급격한 확산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파악된다. 작품 속에서 아파트는 욕망의 대상으로 의미화된다. 이는 일반 대중에게 강렬한 욕망의 대상이었던 맨션아파트에 관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작품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작품 속에 그려지는 아파트 풍경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평범한 아파트 생활을 다룬 듯하지만, 당시로서는 대중의 소유욕을 강하게 자극하는 선망과 질시의 대상이

\* 이주대학교 조교수

었다. 한편 『타인의 방』의 주인공은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 곧 아파트와 아내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인물이다. 그가 주장한 주인으로서의 지위는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파악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아내의 속임수를 깨달은 순간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건들의 모반이 일어나고 주인공이 물건으로 변해버리는 결말은 그가 주장하던 독점적 소유권에 생긴 균열이 존재의 외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개인』의 결말을 참고할 때 『타인의 방』의 결말은 현실과의 타협을 향한 비판과 경고로 읽힌다. 이에 『타인의 방』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통해 욕망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던 인물이 주인에서 물건의 지위로 전락하는 결말을 통해 1970년대 초반 사회적으로 확산되던 과도한 물질적 욕망을 비판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맨션아파트, 경제 성장, 부동산, 물질적 욕망, 소유, 존재

## 1. 서론

평론가 김병익은 작가 최인호를 ‘70년대 작가들의 맨 첫머리 자리에 앉혀진 소설가’로 칭했다.<sup>1)</sup> 60년대 말부터 시작한 급속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라는 ‘70년대적 증상과 징후’를 최인호가 동시대 어느 다른 작가보다 더욱 뚜렷이 드러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인호는 “도시화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어떻게 상실하고 또 회복하는가” 곧 ‘소외’라는 현대인의 근본 주제를 세련된 문체와 도회적 이미지로 그려냄으로써 ‘70년대적 감수성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단적으로 예시한 작품이 바로 『타인의 방』이라는 설명으로 이어진다.<sup>2)</sup>

『타인의 방』에 관한 초기 비평적 논의는 앞서 김병익의 논의처럼 ‘소외’, ‘도시’ 등의 키워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주연은 『타인의 방』이 한국소설사에서 소외라는 주제에 “정면으로 달려든 처음의 소설”이라고 강조하면서 작품 속 소외 의식이 “사적·신변적 수준을 넘어서 보편적 실존의 영역으로 넓혀져 있”다고 평가하였다.<sup>3)</sup> 또 김치수는 『타인의 방』을 “현대인의 도시적 삶에 대한 자각을 우화적인 수법으로” 보여준 작품으로 규정하면서 ‘개인의

1) 김병익, 『중산층의 삶과 의식』, 『지성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2, 162쪽.

2) 위의 글, 165~167쪽.

3) 김주연, 『최인호의 관능이 의미하는 것』, 『타인의 방』, 예문관, 1973, 299~302쪽.

왜소화'와 '자기 소외감'이 빚어내는 존재적 비극성을 주목하였다.<sup>4)</sup> 논자에 따라서 상투적 현실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일상에 함몰된 허구를 깨우쳐준 다<sup>5)</sup>라는 긍정적 평가와 익명의 세계의 압도적 중하에 절망함으로써 관습의 세계를 수락하고 만다<sup>6)</sup>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타인의 방」이 현대인의 소외감을 적절히 포착했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소외’나 ‘도시’ 같은 초기 비평의 주요 관심사는 이후 본격적 연구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이때 ‘아파트’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분석이 수반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를테면 아파트에 관한 사회학적 논의를 참고하여 작품에서 대화와 소통의 단절<sup>7)</sup>, 접촉의 차단과 익명성<sup>8)</sup> 등 아파트 공간의 구조적 특성과 그로 인한 단절감, 고독감, 불안감 등에 대한 분석<sup>9)</sup>을 통해 소외의 다양한 양상을 살피는 논의가 그러하다. 근대의 사적 공간과 사생활에 관한 사회학 이론을 원용하여 개인의 좌절과 허무 의식을 검출<sup>10)</sup>하거나, 작품 속 아파트를 “권력에 의해 재배치된 사회적 공간”<sup>11)</sup> 내지 “주체를 자율적 공간에서 배제하는 자본주의의 공간 재배치 전략의 수행 결과”<sup>12)</sup>로 파악함으로써 현대도시에 대한 비판을 읽어내기도 한다. 물론 아파트에 관한 관심은 비단 사회학적 접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현대 도시인의 소외라는 주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논의에서 확인된다. ‘타인의 방’이라는 표제에서

4) 김치수, 「개성과 다양성」, 『문학사상』, 1982, 152~153쪽.

5) 김병익, 「60년대 의식의 편차」, 『문학과지성』, 1974 봄, 176쪽.

6) 김현, 「초월과 고문 - 한 소설가의 세계 인식에 대하여」, 『문학사상』, 1973.4, 308쪽.

7) 안남연, 「최인호 작품과 현 사회 인식의 상관적 관계」, 『한국문예비평연구』 1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2, 151쪽; 김인경,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서사 전략의 양가성 연구 - 조세희, 최인호, 이청준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학회, 2008.4, 301쪽.

8) 김정남, 「도시 주거공간의 비장소성과 단자적 의식의 문제 - 최인호의 「타인의 방」과 채영주의 「도시의 향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5, 한민족문화학회, 2019, 215쪽.

9) 이회경, 「도시 문명에 갇힌 인간 소외와 상실감 -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15, 동서언론학회, 2012.2, 149~150쪽; 이수정, 「현대소설의 도시 이미지 상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3, 354쪽.

10) 오창은, 「도시 속 개인의 허무의식과 새로운 감수성 -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32, 중앙어문학회, 2004.12, 263~265쪽.

11) 김영성, 「1960-70년대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문화정치학 - 최일남, 이동하, 최인호의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2009.3, 325쪽.

12) 이평진, 「현대소설에 나타난 도시 공간의 위상학 연구 - 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9, 195쪽.

부터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어 「타인의 방」에 관한 논의에서 아파트는 기본 검토 대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타인의 방」에 관한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파트에 관해서 ‘현대의 전형적인 주거 공간’,<sup>13)</sup> ‘도시화의 상징’,<sup>14)</sup> ‘근대적 상징물’<sup>15)</sup> 등 근대 도시의 대표적 주거 형태이자 현대성의 표상으로서의 의미에 집중할 뿐 작품 발표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하다.<sup>16)</sup> 물론 아파트가 한국 사회의 보편적 주거 형태이며 그 자체가 현대 도시화의 상징이라는 설명은 누구나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오늘날과 같이 아파트 보급률이 높고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된 상황에는 잘 들어맞지만, 아직 아파트 자체가 생소하고 일반 대중들의 거주 경험이 극히 제한적이던 상황에서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현대도시의 보편적 주거 형태라는 의미에 덧붙여 초기 아파트에 관한 당시의 맥락을 검토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작품이 발표된 1971년 초의 시점에서 아파트는 한국인 대부분에게 매우 낯선 주거 형태였다. 아파트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해방 후 1958년에는 한국 아파트의 효시인 중앙아파트가, 1962~64년에는 아파트단지 개념을 최초로 확립한 마포아파트<sup>17)</sup>가 완공되고 나서 1960년대 중반부터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sup>18)</sup>에 따르면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1980년 6.98%, 1990년 22.74%, 2000년 47.34%에 달하였으며, 2021년 현재 전국적으로 60.45%의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같은 자료에서 작품 발표 직전인 1970년 기준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

13) 이수정, 앞의 논문, 355쪽.

14) 안남연, 앞의 논문, 161쪽.

15) 이희경, 앞의 논문, 150쪽.

16) 이러한 경향은 초기 비평적 논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73년 김주연의 글에서도 ‘아파트’를 ‘문명화’와 동일시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김주연, 앞의 글, 299쪽.

17) 발레리 줄레조, 『아파트 공화국』, 길혜연 역, 후마니타스, 2007, 33쪽.

18) 통계청, 「주택의 종류별 주택 - 읍면동(연도 끝자리 0, 5), 시군구(그 외 연도)」, 『주택총조사』, 2022.7.28., 2023.04.2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01&conn_path=I2)

은 0.77%에 불과하다. 아파트 보급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타인의 방」은 아파트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직전 또는 증가하기 시작하는 첫머리에 창작된 작품이며, 아직은 아파트가 희소하던 시기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아파트 생활을 선취한 작품이 되는 셈이다.

더욱이 당시의 아파트는 형태와 기능 면에서 오늘날의 아파트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1960년대만 해도 아파트 가구별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으며 “소형 아파트의 경우 복도 같은 공용 공간에 화장실을 두어 각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sup>19)</sup> 그런데 「타인의 방」에서는 아파트로 돌아온 주인공이 수세식 변기, 세면대, 욕조 등을 모두 갖춘 욕실에서 샤워를 하며 피로를 푼다. 이런 장면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을 그린 것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수세식 변기나 세대별 화장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파트가 흔하던 시절에 발표한 작품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유표적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1971년 봄 무렵 「타인의 방」을 집필하던 작가 최인호를 비롯하여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하고 인식한 아파트는 아파트 거주 경험이 보편화된 오늘날의 아파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이 글에서는 작품 발표 당시 아파트에 관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검토하고 이를 작품 해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건축사 및 주거사 분야의 문헌을 활용하여 작품에 나오는 아파트가 어떠한 아파트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특정된 그 아파트에 관한 당시의 인식을 살펴본다. 나아가 작가는 왜 그런 아파트를 소재로 채용하게 되었는지, 또 그런 아파트가 작품의 의미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타인의 방」을 조금은 새로운 각도에서 읽어보고자 한다.

19) 장림중·박진희,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 효형출판, 2009, 44쪽.

## 2. 1971년 초의 아파트

『타인의 방』이 『문학과지성』 1971년 봄호에 발표될 무렵 서울에는 여러 종류의 아파트가 있었다. 한국 근대 주택 역사를 정리한 박철수의 『한국주택 유전자』에서 1962년 마포아파트 준공 이후부터 작품 발표 직전인 1970년까지 서울에 건설된 아파트를 추리면 서민아파트, 시민아파트, 맨션아파트 등이 있다.<sup>20)</sup> 이들 세 종류의 아파트는 최인호가 1970년대에 쓴 다른 작품에도 종종 등장하고 있어 『타인의 방』에 나오는 아파트도 이 셋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세 가지 아파트를 각각 작품 내용과 맞춰봄으로써 『타인의 방』에 나오는 아파트를 특정해보고자 한다.

먼저 시민아파트를 살펴보자. 1973년 발표한 최인호의 장편소설 『우리들의 시대』에서 주인공 ‘나’의 같은 반 친구인 박영민이 사는 집이 시민아파트로 나온다. 작품에서 시민아파트는 난생처음 시민아파트에 가본 ‘나’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통해 포착된다. ‘나’는 담임선생님이 알려준 주소를 들고 장기 결석한 친구의 집을 찾아간 길이다. ‘나’가 “신촌 로우터리에서 보면 우뚝 선 시민아파트 7동”<sup>21)</sup> 맨 꼭대기 6층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복도에는 온통 물이 넘쳐흐르고 있었고 그 진흙탕에서 아이들이 고함지르며 뛰어놀고 있었으며 그 아이들을 야단치는 아낙네의 쌍소리가 온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려 영민의 집을 찾았는데 어이없게도 조금 전 쌍소리를 한 여인이 바로 영민의 엄마로 밝혀진다.

시민아파트는 1960년대 중반 서울시 무허가 건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건설되었다. 김현옥 당시 서울 시장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신 값싼 아파트를 세워 철거민을 수용하겠다는 구상 아래 1969년부터 3년간 시민아파트 2,000동을 건립함으로써 9만 개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영세민에게 시민아파트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실제로 1969년 한 해에만 서울 32개 지구에서 시민아파트 406동 1만 5, 840호의 아파트

20) 박철수, 『한국주택 유전자2』, 마티, 2021.

21) 최인호, 『우리들의 시대(상)』, 예문관, 1975, 39쪽.

가 건설되었는데<sup>22)</sup>, 이는 그해 전국에 건설된 아파트 750동 3만 4, 331호의 절반에 해당한다.<sup>23)</sup>

시민아파트의 급속한 양적 팽창 이면에는 조악한 질적 수준과 방만한 부실시공이 뒤따랐다. 시민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골조와 주요 시설만을 공급하고 내장과 마감은 입주자의 몫으로 돌렸다. 화장실도 공용이었고 세대 면적도 5-16평에 불과했다.<sup>24)</sup>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지대에 주로 건설된 시민아파트에는 수도 설비가 부실하여 수도물이 하루 2~5시간씩밖에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sup>25)</sup> 부족한 예산으로 실적을 올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엉터리 설계와 부실시공이 넘쳐나던 시민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는 결국 1970년 4월 8일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로 이어졌으며, 이 사고로 인해 김현옥 시장은 물러나고 시민아파트 건설 계획은 전면 중단되었다.

저렴한 예산으로 급조한 저소득층 주거시설인 시민아파트는 「타인의 방」에 나오는 아파트와 잘 맞지 않는다. 『우리들의 시대』에서 아파트 복도가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데 비하여 「타인의 방」에서는 누군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듯 “잘 닦아 반들거리는 복도”<sup>26)</sup>로 되어 있으며 복도에서 초인종을 누를 때 현관문 너머 살내에서 울리는 벨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정도로 주변이 조용하다. 특히 「타인의 방」에서는 주인공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며 피로는 푸는데 이것은 시민아파트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아파트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대개 공동 화장실이 설치되었고 수시로 식수난에 시달릴 정도로 수도 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세대별로 마련된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민아파트는 후보에서 쉽게 제외할 수 있다.

22)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1』, 한울, 2005, 251~252쪽.

23) 박철수, 『아파트』, 마티, 2013, 99쪽.

24) 같은 곳.

25) 「철 이룬 식수난」, 『경향신문』, 1971.2.26.

26) 최인호, 「타인의 방」, 『문학과학지성』, 1971 봄호, 155쪽. 이하 「타인의 방」의 인용은 본문에 면수를 표기.

다음으로 서민아파트를 살펴보자. 1972년 9월 6일부터 1973년 9월 9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한 장편소설 『별들의 고향』에서 주인공 ‘나’(문오)는 아파트에 거주한다. 최인호는 작품 속 ‘나’의 아파트가 실제로 작가 자신이 살았던 연희동 새마을아파트를 모델로 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sup>27)</sup> 1970년 준공된 13평 방 2개짜리인 이 새마을아파트는 전형적인 서민아파트다. 표준 12평형 서민아파트에는 세대마다 욕실을 설비하였으므로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던 서민아파트와는 달리 주인공이 샤워하는 장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타인의 방」에서는 “어디선가 잠이 깬 듯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156쪽) 오는 것으로 보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최인호가 신혼 시절 2년간 새마을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갓 태어난 딸을 키우며 살았던 전기적 사항을 고려하면 「타인의 방」의 아파트가 서민아파트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주거변천사의 측면에서는 「타인의 방」의 아파트와 『별들의 고향』의 서민아파트 사이에는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욕실의 구조와 사용법이 다르다. 「타인의 방」에는 욕조와 세면대가 있으나 『별들의 고향』에는 세면대 없이<sup>28)</sup> 욕조만 있다. 전남일은 우리나라 주택에서 욕조가 도입될 때 발생한 독특한 현상으로 세면대보다 욕조가 먼저 정착했음을 지적했다. 세면대 없이 욕조만 설치한 경우가 둘 다 설치한 경우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말인데 이것은 몸에 물을 끼얹으며 씻는 전통적 목욕 관습과 관련된다. 그는 설명한다. 초기 아파트의 욕조는 목욕 외에 세면, 세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으며, 욕조에 담긴 물을 대야에 퍼서 세면할 수 있으니 공간이 좁은 아파트에서는 욕조가 먼저 도입되었고 세면대 도입은 나중에 밀렸다는 것이다.<sup>29)</sup> 『별들의 고향』의 여러 대목은 세면대가 없는 초기 아파트의 욕조 사용법을 예시한다. 『별들의 고향』에서는 평소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있으며, 욕조의 물을 퍼서 몸에 끼얹으며 목욕하고, 욕조 옆에서 물을 퍼서

27)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여백미디어, 2015, 220쪽.

28) 『별들의 고향』에서는 세면대 없이 세면 도구함을 욕실 바닥에 두고 쓴다.

29) 전남일, 『집』, 돌베개, 2015, 112쪽.



빨래를 하거나 과일을 씻기도 하는데, 이것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이를 생활용수로 퍼서 쓰는 가정이 흔했”던 당시의 욕실 사용 습관<sup>30)</sup>이 반영된 결과이다. 반면 「타인의 방」에서는 샤워를 하거나 물을 받은 욕조 안에서 몸을 씻으며<sup>31)</sup>, 거울 달린 세면대에서 세수와 면도를 한다.<sup>32)</sup>

둘째 거실의 구조와 사용법이 다르다. 정확히 말해서 「타인의 방」에서는 ‘거실’이라고 나오고 『별들의 고향』에서는 ‘마루’라고 나온다. 초기 아파트에서는 ‘거실’보다 ‘마루’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마루’는 전통가옥의 ‘대청’ 개념이 이어진 것으로 난방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온돌방과 구별되었다. 전통가옥에서는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생활 대부분이 대청이 아닌 방에서 이루어졌으며 방에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는 식침혼용(食寢混用)의 생활 습관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것은 초기 아파트에도 이어졌다.<sup>33)</sup> 『별들의 고향』에서 문오와 경아가 방금 자고 일어난 ‘방’에 커피를 타 와서 마시고, 밥상을 가져와 아침 식사를 하며, 낮이 되면 화가인 문오가 같은 곳에서 그림도 그리는 것은 초기 아파트에 이어진 식침혼용의 결과다. 반면 「타인의 방」에서는 주인공이 거실에서 음악을 듣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휴식을 취하는 등 거실을 생활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 서민아파트 같은 소형 아파트에서는 거실보다는 안방을 위주로 한 당시의 일반적인 생활 습관을 반영하여 거실이 안방보다 훨씬 작게 설계되거나 아예 거실이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sup>34)</sup> 「타인의 방」의 주인공이 거실 소파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거실이 협소한 서민아파트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셋째 난방 방식이 다르다. 초기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연탄을 사용한 개별 난방 방식을 채택했으며 서민아파트도 예외가 아니었다. 1970년대까지 연탄 난방은 아파트는 물론 일반 주택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며, 난방 연료로 유류나 가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화된다.<sup>35)</sup>

30) 전남일·양세화·홍형욱, 『한국 주거의 미사사』, 돌베개, 2009, 324쪽.

31) “욕조 안엔 아내가 목욕을 했는지 더러운 구정물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타인의 방」, 159쪽.

32) “그는 우선 세면대에 고무마개를 틀어막은 후 더운물과 찬물을 동시에 틀었다.” 「타인의 방」, 159쪽.

33) 전남일, 『한국 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0, 312쪽.

34) 위의 책, 310~312쪽.

그런데 『타인의 방』에서 주인공이 현관을 열고 아파트 실내로 들어온 직후의 상황은 연탄 난방을 채택한 아파트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아파트에 들어온 주인공이 ‘코트’를 벗는 것으로 보아 작품의 시간 배경은 겨울이다. 주인공이 아내는 “출장 간 그날부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을 것”(163~164쪽)이라고 짐작하듯 아내는 며칠째 외출 중인 듯하다. 하지만 며칠간 아파트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온도는 높아서 “스팀 기운이 새어 나갈 틈이 없었으므로 후텁지근한 거실”(158쪽)에서 주인공은 별거벗은 채 돌아다니고 있다. 곧 『타인의 방』에서는 사람이 며칠씩 집을 비워도 지속적으로 난방이 되었던 셈인데 이는 연탄 연소 시간이 약 8~9시간인 탓에 하루에도 여러 번 불을 갈아주어야 하는 연탄 난방<sup>36)</sup>을 채택한 서민아파트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즉 『타인의 방』에 나오는 아파트에 사용된 난방 방식은 적어도 연탄 난방 방식은 아니라는 말이 되는데, 당시 서민아파트는 모두 연탄 난방을 채택했기에 『타인의 방』의 아파트는 서민아파트가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맨션아파트를 살펴보자. 맨션아파트는 1972년에 발표된 『전람회의 그림1』에서 주인공의 친구가 사는 아파트로 나오는데 아파트에 관한 묘사나 서술이 부족하여 작품 간의 비교 검토는 쉽지 않다. 그 대신 1970년 9월 동부이촌동에 23개동 660세대로 준공된 한강맨션아파트에 관한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어 이것을 『타인의 방』에 나오는 아파트와 비교할 수 있다.<sup>37)</sup>

『타인의 방』에 나오는 아파트와 한강맨션아파트는 난방 방식이 일치한다. 며칠간 집을 비웠음에도 지속적으로 난방이 공급되는 상황이 연탄 난방을 채택한 서민아파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만약 ‘중앙난방(central heating)’을 채택한 아파트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중앙난방은 중앙의 대형보일러에서 생산한 100° C가 넘는 중온수<sup>38)</sup>를 파이프를 통해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개별 세대에 설치된 난방 조절 장치를 끄지 않고 외출한

35) 전남일, 『집』, 돌베개, 2015, 133쪽.

36) 위의 책, 131쪽.

37) 1971년 2월까지 건설된 맨션아파트는 한강맨션아파트 외에 성야맨션(한남동)(93세대), 연세생산성 맨션(210세대)이 있었다.

38) 중온수란 수증기에 고압을 가하여 액체로 만든 100~170° C의 온수를 가리킨다.

다면 집에 사람이 없어도 난방은 계속 공급된다. 바로 한강맨션아파트가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식 지역 온수난방시설’을 갖춘 아파트였다. 일간지에 실린 한강맨션아파트 광고에서 “한국 최초의 중앙식 중온수 종합보일러 설치”를 아파트의 특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sup>39)</sup> 맨션아파트의 난방 방식이 대중들에게 알려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으며 작가 최인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앙난방을 채택한 아파트에서는 중앙의 대형보일러가 지속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난방뿐만 아니라 온수 공급도 원활하다. 「타인의 방」에는 “더운물과 찬물을 공급하는 조종간”을 잡고 더운물 쪽을 돌리자 “뜨거운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160쪽)라는 내용이 나온다. 개별 보일러를 사용한다면 ‘급탕’이나 ‘온수’ 기능을 작동시켜 물을 데우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타인의 방」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건너뛰어 채 곧바로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진다. 이것은 중앙 보일러가 가동되어 항상 즉각적으로 각 세대에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중앙난방이 적용된 아파트임을 의미한다.

중앙난방 방식의 도입은 생활양식 전반에 걸친 변화로 이어진다. 한강맨션 아파트를 건설한 대한주택공사는 중앙난방의 도입이 “입주자의 생활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한국 최초의 완전 입식’ 시도의 일환이었다고 밝힌다.<sup>40)</sup> 한강맨션아파트에서는 집 전체를 라디에이터로 난방했다. 온돌이 없어 바닥이 차가우니 침대를 쓸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방의 이름도 ‘안방’이 아니라 ‘침실’로 바뀐다. 『별들의 고향』에서는 안방에 이불이 깔렸던 데 비해 「타인의 방」에서는 침실에 침대가 놓여 있는 것은 입식 생활 여부에 따른 차이인 셈이다. 또 입식 생활은 전통적 식침혼용의 생활 습관도 무너뜨렸다. 안방(침실)에 침대가 놓이게 되자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식사하기보다는 식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으로 가서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타인의 방」에서 아내가 “밥상은 부엌에 차려 뒀어요.”(158쪽)라고 메모를 남기고, 그 메모에 따라 주인공이 부엌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39) 『조선일보』, 1969.9.9.

40)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20년사』, 대한주택공사, 1979, 369쪽.

서구적 입식 생활의 도입으로 인한 식침분리(食寢分離)의 예시에 해당한다.

물론 서민아파트나 시민아파트라 하더라도 부엌에서 식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탄 난방을 사용한 아파트의 부엌은 오늘날 아파트의 부엌과는 크게 달랐다. 연탄 난방을 사용한 아파트에서 부엌은 연탄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고, 보관해놓은 연탄에서 가루가 날릴 수도 있어서 다른 공간과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아예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출입하도록 한 경우도 흔했다. 또한 온돌 구조상 부엌 바닥이 다른 공간보다 낮게 설계되고, 바닥은 장판이나 마루 마감이 되지 않아 부엌일을 할 때는 신발을 신어야 했다.<sup>41)</sup> 맨션아파트를 제외한 당시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된 부엌은 오늘날 아파트의 부엌보다는 전통가옥의 부엌에 더 가깝다고 보면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민아파트나 시민아파트에 서라면 굳이 지저분하고 불편한 부엌이 아니라 방이나 마루에 밥상을 차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타인의 방』에서는 주인공이 거실과 침실을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가는데 이때 현관을 거친다거나 신발을 신는 행동은 전혀 없다. 더구나 이때 그는 벌거벗은 상태였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부엌으로 간다. 한편 부엌에서 허기를 때운 주인공은 굳이 신문을 찾기 위해 사방을 둘러본다. 굳이 부엌에 신문을 놓아둘 까닭은 없으니 주인공은 부엌에 있으면서 거실이나 방 어딘가에 놓여 있을 신문을 찾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부엌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부엌과 거실이 연결된 구조는 오늘날 아파트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구조이지만 당시로서는 새롭게 도입된 LDK 모델<sup>42)</sup>을 적용한 결과다. 맨션아파트에서는 난방 방식이 바뀌어 부엌 높이가 거실 높이와 같을 수 있었고, 연탄가스 환기 문제도 사라져서 굳이 부엌을 분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LDK 모델을 적용할 수 있었다. 뭔가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주인공이 방, 부엌, 욕실,

41) 박해진,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모음, 2011, 225쪽.

42) LDK 모델에서 LDK는 Living, Dining, Kitchen의 약자로 거실-식당-부엌을 연결하는 열린 공간을 기본으로 삼는 평면구성 방식을 지칭한다.

거실을 활차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은 작품 속 아파트 공간 구조가 거실을 중심으로 모든 실내 공간이 연결된 LDK 구조임을 방증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타인의 방」이 발표된 1971년 초의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아파트의 공간 구조와 그로 인한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 「타인의 방」에 나오는 아파트는 시민아파트, 서민아파트, 맨션아파트 중 맨션아파트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타인의 방」에서는 중앙난방 방식을 사용한 아파트에서만 가능한 상황이 나오는데 작품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중앙난방은 맨션아파트에만 도입된 최신 설비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제외된다.

### 3. 경제성장과 부동산

맨션아파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파트는 도시 서민이 사는 주택’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생활양식의 표준은 단독주택이었고 아파트는 “마당 딸린 단독주택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에 임시로 사는 곳”에 불과했다.<sup>43)</sup> 1960년대 중반 이후 주택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아파트 건설이 주목받았다. 시민아파트는 애초부터 무허가 주택 정리로 인해 발생하는 철거민에게 최소한의 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고, 서민아파트 역시 무주택자들에게 공영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을 꾀하겠다는 「공영주택법」, 「공영주택법 시행령」 등에 근거를 두었다. 자연히 “도시의 인구집중과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모든 것에 우선해 토지 이용 효율화와 저렴한 주택공급에 치우쳤고 거주성 확보는 뒷전이였다.”<sup>44)</sup>

이에 비해 맨션아파트는 고급화를 추구한 아파트였다. 큰 집 또는 저택을 뜻하는 맨션(mans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붙인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 맨션

43) 박철수, 『한국주택 유전자2』, 마티, 2021, 189쪽.

44) 위의 책, 347쪽.

아파트는 10평 내외의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이던 당시에 가장 작은 평형이 27평, 가장 많은 평형은 32평, 가장 큰 평형은 55평인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였다. 단순히 면적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설비와 공간 구조 면에서도 여러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한강맨션 아파트를 건설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 아파트는 종래 치증해오던 서민용 아파트라는 범위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중산층용 아파트를 짓는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고,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공급식 중온수 보일러를 설치하여 현대인의 문화생활에 맞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45)</sup> 한강맨션아파트가 시도한 중앙난방, 식침분리형 공간 설계(입식생활), LDK 공간 구조 등은 이후 1980, 90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아파트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아파트 생활의 기본 모델을 맨션아파트가 확립했다고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타인의 방』이 “70년대 작품으로 읽히지 않는”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평가<sup>46)</sup>는 이 작품이 서민아파트나 시민아파트가 아닌 오늘날 아파트 생활의 기초를 형성한 맨션 아파트를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방』이 발표될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맨션아파트는 결코 평범하고 평균적인 아파트가 아니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1970년 말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는 총 3만 658세대가 있었는데 이 중 맨션아파트는 총 963세대에 불과했다.<sup>47)</sup> 또한 한강맨션아파트가 준공된 것은 1970년 9월 9일로 『타인의 방』이 발표되기 불과 몇 개월 전의 시점이다.<sup>48)</sup> 아파트 생활

45)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30년사』, 대한주택공사, 1992, 112쪽.

46) 채호석, 「억압된 것의 귀환 - 사물화의 악몽을 묘화한 '타인의 방'」, 『문학사상』, 2000.3, 65~66쪽.

47) 『아파트 백과』, 『조선일보』, 1971.2.9.

48) 손정목은 ‘한강맨션아파트’ 외에 1968년 ‘공무원아파트’, 1970년 ‘외국인아파트’를 묶어 ‘동부이촌동 아파트단지’로 부르면서 동부이촌동 아파트단지를 한강맨션아파트와 혼용한다. 동부이촌동 아파트단지는 당시 신문에서 ‘한강아파트’로 불리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한강아파트와 한강맨션아파트가 혼용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68년 공무원아파트는 2장에서 살핀 중앙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진 맨션아파트가 아니었고, 외국인아파트는 내국인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작품의 배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한강맨션아파트’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동부이촌동 아파트단지에 관해서는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2)』, 한울, 2005, 280~281쪽 참조.

자체가 새롭고 낯설기만 한 1970년 초의 시점에서 최인호는 작품에서 한층 더 새롭고 낯선 '맨션아파트 생활'을 다룬 것이 된다. 따라서 「타인의 방」에서 최인호가 그려낸 아파트 생활은 당시의 평범한 일상적 모습을 그리기 위함이 아니라 각별한 의도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된 소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최인호가 「타인의 방」에서 맨션아파트를 다룬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타인의 방」을 집필할 당시를 최인호 자신이 직접 회상한 글을 살펴보자.

그 무렵 김현 씨와 김치수 씨가 나를 찾아와 최 형이 써둔 원고량이 많이 있다는 데 내일 아침 작품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묻길래 나는 선뜻 줄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었다. 내게는 「미개인」이란 중편이 있었지만 아직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으므로 잘하면 하룻밤 사이에 그 작품을 완성해서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큰소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와 차근차근 읽어보니 완성시키기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 수 없이 신작을 쓰기로 하고 밤새워 쓴 작품이 「타인의 방」이었다.<sup>49)</sup>

1971년 초 『문학과지성』 봄호를 준비하던 김현과 김치수는 최인호를 찾아와 원고를 청탁한다. 1967년 「견습환자」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한 후 한동안 원고 청탁을 받지 못해 초조해하다가 1970년여야 「술꾼」, 「모범동화」, 「사행」을 발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신인 작가 최인호로서는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치지 싫었고 마침 중편소설 「미개인」을 어느 정도 써놓은 터라 원고 청탁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막상 쓰고 있던 원고를 다시 읽어보니 하룻밤 안에 완성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수 없이 새로운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이 「타인의 방」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미개인」을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급하게 시작한 작품이 「타인의 방」이라는 사실은 두 작품 사이에 일정한 간접 작용이 있었으리라 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두 작품의 공통분모를 찾는 작업이 「타인의 방」의

49) 최인호, 「짧은날의 초상」,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여백, 1996, 33~34쪽.

해석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미개인』은 1970년대 초반 서울 변두리 S동을 배경으로 “이 마을에 일관된 흔들거리는 광기”<sup>50)</sup>를 테마로 한 작품이다. S동 초등학교에 미감아 12명이 편입되자 주민들은 등교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한편 미감아를 혐오하고 급기야 미감아에게 야만적 폭력을 가한다. 주민들의 비이성적 모습의 이면에는 최근 S동이 누리는 경기 호황이 있다. 대대로 천민 취급받으며 가난하게 살던 동네에 개발붐이 밀어닥쳐서 연일 땅값이 폭등하고, 버스 노선이 연장되고, 문화주택이 발 가운데 들어서기 시작한다. “이 추세로 보면 그들은 모두 신흥 재벌이 될 판이었다.”(251쪽) 미감아 편입이 땅값 상승에 찬물을 끼얹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그들을 그토록 비인간적인 광기로 몰아간 것이다. 이에 ‘광기’란 성민엽의 지적대로 “물질문명의 자본주의적 확대의 알레고리”로 파악된다.<sup>51)</sup>

『미개인』에서 ‘광기’는 주로 ‘건설’의 환유로 표현된다. 주인공 ‘나’가 주민들의 광기를 감지할 때마다 “어디선가 불도저의 웅웅거리는 소리”(265쪽; 274쪽; 276쪽)가 들려온다. 불도저로 논밭과 산, 그리고 주인 모를 묘지를 밀어버리고, 새로운 도로, 가건물, 주유소, 다방, 여관, 문화주택 등을 만드는 “새로운 건설이 번쩍거리는 거리”(252쪽)가 S동이다. ‘노무자’처럼 보이는 주민들은 “어제까지의 밭을 갈지 않고, 그곳에 대신 벽돌 공장을 세우거나 그것도 아니면 복덕방으로 전업을 해버리고 말았다.”(251쪽) 이런 점에서 S동은 ‘국토개발’, ‘조국 근대화’의 깃발 아래 추진한 경제개발의 성과가 확인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 한국 사회의 축도이다. 구체적으로 S동은 “한참 뻗어가는 남서울 근처 어디쯤으로 최근에야 비로소 서울시에 편입”(250쪽)(1963년 서울시 행정구역 변경)되었고, “거리 옆으로는 고속도로가 개통”(250쪽)(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개통)하였으며, “언제나 땅은 질퍽거리려 사람들은 생선 장수처럼 장화를 신고 돌아다”닌다(250쪽)(1967년 상습 침수 해결을 위한 한강 개발 시작)는 영동지역(현 강남)이다. 요컨대 최인호

50) 최인호, 『미개인』, 『타인의 방』, 문학동네, 2002, 254쪽. 이하 작품명과 인용 면수만 표기.

51) 성민엽, 『불화와 허위의 세계의 비극성』, 『문학의 빈곤』, 문학과지성사, 1988, 246쪽.



는 「미개인」에서 벼락부자의 꿈이나 광기로 표현된 물질적 욕망을 1970년대 초 영동 개발과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소재로 그려냈다.<sup>52)</sup>

「타인의 방」과 「미개인」의 교집합이 바로 1970년대 초 부동산 열풍이다. 「타인의 방」에서 참고한 맨션아파트, 구체적으로는 한강맨션아파트 또한 당시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놓았다. 이 아파트는 1969년 10월 23일 착공식을 할 때만 해도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다. 과거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서빙고 일대를 매립하여 조성된 유희지에 건설한 탓에 「모래사장에 집을 지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 분양 초기에는 분양률이 저조하여 분양 물량을 직급별로 직원들에게 할당하기까지 했다.<sup>53)</sup> 그러나 1970년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가 이루어질 무렵 상황은 역전되어 인기가 급상승한다. 이에 관해 당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어느새 매진되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었다. 분양 가격 3백 40만 원의 27평짜리가 50만 원, 3백95만 원의 32평이 70만 원, 분양 가격 4백65만 원의 37평이 1백 10만 원, 6백45만 원 이상의 51평과 55평엔 2백만 원까지의 프리미엄이 가산되어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다.”<sup>54)</sup> 또 완공·입주로부터 반년 정도 지난 시점인 1971년 2월 9일자 신문에는 한강맨션아파트에 ‘내장 경비를 제외하고도 10%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맨션붐’이 일고 있으며, 동시에 “맨션에 선호가 집중되자 센트럴히팅, 온수 공급장치를 못 갖춘 아파트”는 “맨션붐에 눌려 값이 15~20%씩 떨어졌고 매매도 거의 없는 편”이라고 소개했

52) 서울 도시계획사를 정리한 손정목은 이때의 부동산 열풍을 한국 부동산 투기의 출발점으로 지목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부동산 투기 과정은 1차, 2차 소동으로 나뉜다. 1차 소동은 1968년 말경이다. “말죽거리에 가서 땅을 사면 떼돈을 번다.”라는 소문이 돌아 1966년 200~400원 선이던 땅값은 1968년 말 4천 원에서 6천 원에 이르렀다. 이후 정부의 개입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하였으나 1969년 12월 제3한강교가 준공되고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전체 구간이 개통되자 다시 땅값이 폭등하면서 2차 소동이 일어나 “1970년 전반기에 4,500~6,000원이던 강남의 땅값은 1971년 전반에 1만4,000~1만6,000원이 되었다.” 이후에도 1980년대 내내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급등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작품의 창작 시기와 작품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미개인」은 1970년 무렵 있었던 강남 부동산 투기 2차 소동을 작품의 소재로 끌어들이어 경제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되던 당시 사회를 알레고리적으로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의 부동산 열풍에 관해서는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3)』, 한울, 2003, 150~157쪽을 참조.

53) 박철수, 앞의 책, 492쪽.

54) 「아파트 산업」, 『조선일보』, 1970.7.15.

다.<sup>55)</sup> 이러한 한강맨션아파트의 성공을 지켜본 민간 주택업자들은 앞다투어 맨션아파트 건설에 뛰어들어 1970년대 초 맨션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기도 한다. 1970년대 초반 남쪽 한강변에서는 땅값 폭등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북쪽 한강변에서는 모래사장 위에 세워진 아파트가 맨션붐을 일으키고 있던 것이다.

한강맨션아파트를 가리켜 발레리 줄레조는 “10여 년 후 강남에 대량으로 건설될 아파트단지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sup>56)</sup>라고 말하였다. 한강맨션아파트의 성공은 1971년 10월 서울시가 건설한 여의도시범아파트, 1973년 주택공사가 건설한 남서울아파트(반포주공아파트) 건설로 이어지며, 이후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자극하였다. 이에 박철수는 “강남개발의 신호탄이자 강남 시대의 서막을 알린 도약대”<sup>57)</sup>라고 설명하면서 “한강맨션아파트를 기점으로 공공주택으로서의 아파트단지가 시장에서 욕망을 부추기는 대상이자 경쟁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급격하게 변화했다”<sup>58)</sup>고 지적하면서 더 나아가 “오늘날까지도 부동산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를 둘러싼 갖은 형태의 이전투구가 바로 박정희 정권의 한강맨션아파트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비판하였다.<sup>59)</sup>

정리하자면 「타인의 방」과 「미개인」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 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문학적 쌍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강남개발 초기의 풍경을 다룬 「미개인」과 아파트를 부동산 시장의 유력한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든 한강맨션아파트를 다룬 「타인의 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부동산 시장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물론 당시의 최인호가 그렇게까지 미래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삶의 보금자리로서의 토지와 주택이 투자와 투기의 수단, 곧 광기에 가까운 물질적 욕망의 대상으로 급격

55) 「아파트 백과」, 『조선일보』, 1971.2.9.

56) 발레리 줄레조, 『아파트 공화국』, 길혜연 역, 후마니타스, 2007, 36쪽.

57) 박철수, 『한국주택 유전자 2』, 마티, 2021, 492쪽.

58) 위의 책, 495쪽.

59) 같은 곳.

히 변화하는 것을 최인호가 예민하게 감지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 4.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아파트

맨션아파트는 일반 대중에게 강렬한 욕망의 대상으로 다가왔다.<sup>60)</sup> 한강맨션아파트는 선분양 방식을 채택한 탓에 기존의 아파트와는 달리 여러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여 대중의 욕망을 자극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현대생활의 안락한 주거는 한강맨션아파트로!!”라는 광고 문구를 강조한 분양 광고를 여러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였다.<sup>61)</sup> 또 한강맨션아파트 분양 과정에는 한국 최초로 모델하우스를 설치·운영하였는데 “실물 크기의 모델하우스에는 종일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루어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sup>62)</sup>고 한다. 이러한 적극적 마케팅은 “아파트와 서민이라는 등식을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 정치”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sup>63)</sup>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를 마치자 이번에는 연일 언론에서 ‘맨션족’과 ‘맨션생활’에 관한 기사를 쏟아내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강부자, 문정숙, 전계현 등 유명 연예인이 한강맨션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소식이나<sup>64)</sup> “전축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담은 음반”을 틀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행복한 맨션아파트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는 여배우의 근황<sup>65)</sup>이 소개되었다. 입주민 인터뷰를 통해 맨션아파트의 편리한 점을 소개하면서 맨션아파트를 ‘생활 혁명’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sup>66)</sup> 또 아래의 인용처럼 아파트 내부 풍경을 상세히

60) 당시 최고급 아파트인 맨션아파트가 새로운 욕망의 대상으로 부상한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1970년 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가장 원하는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이었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 것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다. 박철수, 『아파트』, 마티, 2013, 118~119쪽.

61) 『조선일보』, 1969.9.6.

62)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20년사』, 대한주택공사, 1979, 370쪽.

63) 박철수, 앞의 책, 170쪽.

64) 『아파트 산업』, 『조선일보』, 1970.7.15.

65) 『행복에 젖은 고은아 맨션아파트에 만족』, 『매일경제』, 1970.10.1.

66) 『幕前幕後(막전막후) '70 ㉓ - 아파트』, 『조선일보』, 1970.12.11.

묘사함으로써 ‘맨션생활’을 향한 대중의 욕망을 자극했다.

차밍한 차임벨로 문이 열리면 깨끗하게 깔린 카펫, 폭신한 소파의 응접실에선 스테레오의 선율이 감미로운데 (…) 가정부의 잠자리까지도 하얀 시트가 덮인 맨션 어파트의 생활은 이렇듯 우리의 전통생활 양식을 깎그리 뒤엎었다. 맨션이 지금까지의 어파트와 전혀 다른 점은 완전한 카펫과 침대생활. 집안에서는 슬리퍼를 신어야 하고 잠깐 자리에 누우려 해도 잠옷으로 베드에 들어가야 하는 게 상식이란 다. (…) 부엌은 가스쿠커를 비롯한 현대식 쿠킹세트, 조리대 바로 앞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식탁이 놓여 있는 등 집안은 온통 미국영화에서 보는 그대로다. (…) 어파트 생활의 생태가 대부분 그렇듯 맨션입주자들은 새 생활을 위해 값비싼 가구를 사들이는 데 경쟁적이다. 카펫, 청소기, 고급 응접세트, 취사용구, 침대, 목욕탕, 샤워실, 화장실 등 모두가 새 스타일로 꾸미기에 열을 올린다. (…) 욕심 있게 장만하자면 실내장식비만 2~3백만 원 이상 들었을 것이라는 실내장식 상인들의 말이다.<sup>67)</sup>

맨션아파트는 당시 대중이 보거나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표본을 제시하였다. 위의 기사에서는 우선 맨션아파트 생활이 전통적 생활과 얼마나 다른지를 강조한다. 이어 아파트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새 스타일’의 물건들을 상세히 나열한다. 그러한 물건들은 값비싼 것들이라는 점만 제외한다면 대부분 오늘날 평범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온통 미국영화에서 보는 그대로다”라는 감탄이 덧붙여진 데서도 알 수 있듯 그러한 물건들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최고급의 이미지로 포장되어 대중들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강렬한 욕망의 대상이었다.

주목할 것은 「타인의 방」에도 그와 비슷한 여러 물건이 나열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방」의 아파트에도 소파, 침대, 화장대, 탁자, 책상, 책장, 옷장 등 여러 종류의 가구가 배치되어 있다. 전통 생활에서 수납용 가

67) 「서울 새풍속도(3) - 서구화의 맨션생활」, 『경향신문』, 1970.10.3.

구는 많이 사용하였지만 소파, 식탁, 의자 등과 같은 신체 가구는 일부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것들이다.<sup>68)69)</sup> 작품 속에 나오는 가구들은 대부분 입식 생활에 유용한 것들이라 여전히 좌식 생활 중심이던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 「타인의 방」에서는 “탁상시계 치곤 고급 시계”(158쪽), 육조, 자동면도기, 세면대, “손잡이가 긴 스푼”(162쪽), 전축, 레코드, 트랜지스터, 갓스탠드 등 다양한 생활용품과 가재도구가 등장한다. 이러한 물건은 대체로 전통 생활이나 소형 아파트 생활보다는 ‘새 스타일’의 맨션 생활에 더 잘 어울리는 것들이다. 게다가 작품 후반부에는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이 한꺼번에 날뛰는 ‘모반’이 일어나는데 물건들이 벌이는 “화환처럼 황홀한”(165쪽) 광경은 아파트 실내에 그만큼 물건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타인의 방」에서는 아파트 실내에 배치된 물건들의 환유를 통해 대중의 소유욕을 자극하던 맨션아파트의 경쟁적인 실내 장식에 관한 맥락을 작품 속에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타인의 방」의 주인공은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서 거실 소파에 누워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데 이는 ‘폭신한 소파와 스테레오의 감미로운 선율’이라는 당시 언론에서 부각한 맨션생활의 표상과 일치한다. 물론 작품 속에서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일이 그리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다루어진다. “전축에 전기를 접속” 시키고, “많은 전축판 속에서 아무 판이나 뽑아” 들고, “투원반을 가볍게 날리는 육상선수처럼”(161쪽) 레코드를 받침대 위에 올리는 일련의 행동들은 건조한 문체 속에 나열된다. 그러나 ‘전축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아파트’는 한강맨션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당대의 인기 여배우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화목한 가정의 미장센”<sup>70)</sup>으로 평균적인 소득 수준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부러움이나 위화감을 가질 만한 것이다. 즉 작품 속 주인공은 시종일관 무심한 태도로 아파트 실내에 배치된 여

68) 전남일, 양세화, 홍형욱, 앞의 책, 260쪽.

69) 전통 생활에서 대표적인 수납 가구였던 장롱은 아파트 생활에서 침대와 경합을 벌여 “가장 처치 곤란한 물건”으로 전락한다. 또한 침대 생활로 인해 이불장 역시 작아지고 점차 붙박이장이 대신하게 된다. 박해진, 앞의 책, 302쪽.

70) 위의 책, 84쪽.

러 물건을 사용하면서 휴식을 취하지만 당시의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그러한 주인공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선망과 질시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욕망의 대상이던 것이다.

맨션아파트를 향한 대중들의 욕망은 「타인의 방」에서 아내를 향한 주인공의 욕망으로 치환되어 나타난다. 특히 주인공의 욕망은 아내의 육체에 관한 성적 욕구의 형태로 표출됨으로써 그런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드러내기도 한다. 아내의 육체에 비유된 아파트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분석된 바 있는데 주로 주인공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김종육은 집에 들어가자 하는 주인공의 욕망과 관련하여 주인공의 행위가 “성적인 맥락에서 하나의 계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았으며, 71) 강유진은 ‘지퍼 달린 아내의 성기’와 ‘집(아파트)’이 외부 침입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집과 아내의 동일시’로 이어진다고 보았다.72)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고 할 때, 주인공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과정 외에 작품의 다른 곳에서도 아파트와 아내의 육체 간의 비유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아내의 성기는 “질 좋은 방한용 피륙을 느끼게 하고 굉장한 포용력을 암시”(162쪽) 하는데, 모피란 값비싼 물건의 제유이고, 포용력이란 양적 풍부함을 지칭한다고 할 때, 그것은 값비싼 가구와 고급스러운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맨션 아파트의 실내 풍경의 비유가 될 수 있다. 또 ‘견고하고 질이 좋은 작크’가 달린 아내의 성기란 치명적 매력을 지닌 바기나 덴타타(Vagina dentata)와 연결되는데 주인공이 한낱 물건으로 변해버리는 작품 결말에 깔린 거세 공포73)나 주체의 불안74)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를 아내의 육체에 비유한 것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타인의 방」에서 아파트가 단순한 배경에 그치지 않고 주인공의 욕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71) 김종육,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환상과 정치적 무의식 -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8, 2013, 216쪽.

72) 강유진,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집과 도시의 공간성 연구」, 『우리문학연구』 55, 우리문화회, 2017.7, 256~257쪽.

73) 황도경, 「물화의 공포와 유혹 - 최인호의 ‘타인의 방’」, 『문학사상』, 1999.3, 109쪽.

74) 우찬제, 「현대성의 반란과 실존적 불안」, 『불안의 수사학』, 소명출판, 2012, 331쪽.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적 욕구가 아내를 향한 욕망의 전부는 아니며 그보다 상위에 설정된 ‘안락한 휴식’에 대한 욕망의 일부분을 이룬다. 기실 「타인의 방」의 주인공은 작품이 전개되는 내내 안락한 휴식을 간절히 원한다. 주인공이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에 들어와서, 즉 아내의 몸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는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는 데 집중된다. 그는 말라버린 빵조각으로 ‘허기’를 달래고, 청소가 안 된 욕실에서 샤워하면서 피로를 누그러뜨리고, 솟아오른 ‘성욕’을 혼자서 해소한다. 만약 아내가 집에 있었다면 모두 아내가 남편에게 제공할 만한 서비스들이다. 주인공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식욕, 성욕을 충족해주시기를 원했고 거실에서 음악을 듣고 쉴 때 곁에서 시중들기를 바랐던 것이다. 곧 주인공이 아내에게 바란 것은 편안한 휴식이며, 주인공은 이를 위해 헌신적인 양치인 동시에 요염한 요부라는 이중적 이미지의 아내를 욕망한다.

이러한 아내의 이미지는 가정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변화와 연결된다.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자 “가정은 일터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이고 쉬는 곳이라는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 “사회와 가정이 이분법적으로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sup>75)</sup> 「타인의 방」에서도 “피로한 거리/아늑한 방”이라는 대립<sup>76)</sup>이 설정된다. “그는 방금 거리에서 돌아왔다. 너무 피로해서 쓰러져 버릴 것 같았다.”(155쪽)라는 첫 구절에서도 확인되듯 주인공은 작품의 시작부터 극심한 피로에 시달린다. “너무 피로해서 툭툭 부은 다리를 질질 끌며”(157쪽)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면서 주인공은 ‘거리’에서 심각한 부상이라도 당한 것처럼 보인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귀가한 남편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성적 판타지도 충족시켜주는 아내, 곧 「타인의 방」의 주인공이 욕망하는 아내다. 이는 1980년대 여성잡지를 중심으로 확대·재생산된 가정담론에 빈번히 등장하는 “도시적 삶의 비정한 경쟁 논리에 지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감싸주어 사랑받는 아내의 관능적 이미지”<sup>77)</sup>를 앞당겨 제시한 것

75)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욱,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197쪽.

76) 채호석, 앞의 글, 68쪽.

으로, 이러한 선취는 「타인의 방」에 나오는 아파트가 이후 건설될 아파트의 표준 모델을 제시한 맨션아파트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편 「타인의 방」의 주인공은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 곧 ‘아파트=아내’에 대하여 자신이 주인임을 주장한다. 이것은 그가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는 작품의 첫 장면에서부터 잘 나타난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입니다.”라고 해명한다.<sup>77)</sup> 물론 ‘집의 주인’이라는 표현에서 ‘주인’은 소유자와 거주자를 동시에 의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주인이 거주자보다는 소유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웃 사내가 자신이 아파트에 사는 동안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즉 거주 사실을 집요하게 의심하자 그는 자신도 그곳에 거주한다고 반박하는 대신 열쇠를 꺼내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 보인다. 이웃 사내가 조금 전과는 달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열쇠는 그가 아파트의 주인이며 아파트가 그의 소유물임을 확실히 보증하는 듯하다. 곧 그는 자신이 그곳에 사는 사람(거주자)이라고 해명하는 대신 자신이 아파트의 주인(소유자)임을 주장함으로써 존재를 증명한다.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은 대상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며 이때 주체와 대상은 주종관계를 이룬다. 우선 주인공과 그의 소유물인 여러 물건이 주종관계를 형성한다. “오늘 밤 중대한 쿠데타가 있을 꺼예요.”(163쪽)라는 속삭임을 들은 주인공은 환히 불을 켜고 물건들을 ‘감시’, ‘검사’, ‘조사’하는데 이때 그는 독재권력자에, 그가 들여다보는 물건들은 “잘 참고 세금 잘 무는 국민”(164쪽)에 비유됨으로써 주인공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이 자못 폭압적인 권력의 행사에 가깝다는 점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주인공과 아내도 주종관계로 볼 수 있다. 주머니 속에 열쇠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아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며 문을 두드렸던 데에는 그것이 “아내된 도리이며” “남편의 권리”(156쪽)라는 가부장적 생각이 깔려

77) 박해천, 앞의 책, 301~302쪽.

78) 에리히 프롬식으로 표현하자면 주인공은 자신을 ‘존재적 실존양식’이 아니라 ‘소유적 실존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유적 실존양식에 관해서는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차경아 역, 까치, 1996, 105~114쪽 참조.



있다. 더욱이 그는 아내가 집을 청소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아내의 게으름을 거리의 창녀에게보다도 더 심한 욕으로 힐책”(159쪽)하면서 남성의 우월권을 주장한다. 여기서 주인공은 아내를 ‘피로를 풀어주는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으며, 일종의 수단으로 간주된 아내는 사실상 거실에 놓인 소파나 전축 같은 물건들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즉 평소 주인공은 아내를 자신이 소유한 물건으로 취급하던 셈이다. 결국 아파트와 아내의 동일시가 비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인식과 태도에서도 그러함을 의미한다.

물건들의 모반이 일어나고 급기야 주인공이 물건으로 변해버리는 「타인의 방」의 결말은 주인공이 주장했던 독점적 소유권의 균열과 관련이 있다. 아파트에 들어온 직후 주인공은 아내로부터 제대로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누워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던 주인공은 문득 “아내가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161쪽)을 뒤늦게 깨닫는데, 이때 그는 화를 내지도 않고 그저 “쓰게 웃는다.”(161쪽) 이때의 쓴웃음은 감히 주인을 속인 아내의 당돌함에 대한 반응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동안 자신의 소유물이나 다를 바 없다고 여겼던 아내에게 주인인 자기가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애써 무마하려는 기제로 볼 수도 있다. 특히 성적 능력이 뛰어난 아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외출했다면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내의 외도란 가부장제 남성이 아내를 독점할 권리를 완전히 상실했음을, 그동안 견고하다고 믿었던 자신과 아내 사이의 위계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렸음을 의미한다.

주人公이 아내의 거짓말을 깨달은 직후 아파트 곳곳에서 이상한 변화가 감지된다. “공기를 휘젓고 가볍게 이동하는 발자국 소리”(162쪽)가 들리고, 분명히 잠근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거나 재떨이에서는 피우지도 않은 담배가 불이 붙은 채 타고 있다. 아내가 외출한 아파트에 혼자 있던 주인공이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것인데 급기야 그는 ‘누구요.’라고 “조심스럽게 소리를 지른다.”(162쪽)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한 주인공의 불안한 목소리에서는 단순히 외부 침입자를 향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는 열쇠를 가진

주인만이 들어올 수 있는 독점적 점유 공간이라는 주인공의 민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린 데서 기인하는 당혹감을 읽을 수 있다. 주인공에게 안락한 휴식을 약속하던 아파트는 이제 낯설고 불안한 ‘타인의 방’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아내의 거짓말을 깨달은 직후 아내와의 위계질서에 발생한 균열이 물건들과의 관계에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아내의 외출로 시작된 미세한 균열은 집 안 곳곳의 동요로 확대되고 나아가 주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물건들의 모반이 이어져 결국 주인공은 ‘물건’으로 변해버린다. 이후 아내가 돌아왔을 때 그는 아파트 실내를 장식하는 수많은 물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제 아내가 새로운 주인이고 그는 아내가 소유한 물건이 됨으로써 주종관계는 역전된다. 주인인 아내는 물건이 된 주인공을 처음에는 애정을 갖고 대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별 소용이 닿지 않는 물건임을 알아차렸고 싫증이 났으므로 그 물건을 다락 잡동사니 속에 처넣어 버렸다.”(165쪽) 이것은 평소 주인공이 아내를 자신의 안락한 휴식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 즉 일종의 도구 내지 물건으로 취급하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으로 한때 주인이던 그가 하찮은 물건 신세로 전락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그가 자신을 아파트와 그 안을 채운 여러 물건의 주인, 그리고 아내의 주인이라 여김으로써 자신의 주체를 확립하였던 것을 상기하면 주인이 물건으로 변해버리는 작품의 결말은 독점적 소유권의 상실이 주체의 와해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주인공이 물건으로 변해버리는 결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는 그의 다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다리가 굳어진 것을 시작으로 점차 온몸이 굳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물건들의 모반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결국 물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다리를 쓸 수 없는 위기에 놓인 셈인데, 앞서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집필하였던 작품인 『미개인』의 결말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때였다. 그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강직해 오는 것을 느꼈다. (...) 그는 손을

내려 다리를 만져 보았는데 다리는 이미 굳어 석고처럼 딱딱하고 감촉이 없었으므로 별수 없이 손에 힘을 주어 기어서라도 스위치 있는 쪽으로 가리라고 결심했다. 그는 손을 뻗쳐 무거워진 다리, 그리고 더욱더 굳어져 오는 다리를 끌고 스위치 있는 곳까지 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는 채 못 미쳐 이미 온몸이 굳어져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슛제 체념해 버렸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는 조용히 다리를 모으고 직립하였다. 그는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다. (『타인의 방』, 165쪽)

나는 뒤로 쓰러졌다. 나는 일어서려 하였다. 정말이지 필사의 노력으로 일어서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내가 일어서려 할 때마다 박은 나의 목발을 모래사장 저편으로 발길로 차고 있었다. 나는 모래사장을 기었다. 나는 축축하고 차디찬 모래사장을 기었다. (...) 나는 온몸의 힘을 다해서 길짐승처럼 기었다. (...) 나는 다시 땀을 흘리면서 기기 시작했다. 엉망이다. 나는 중얼거렸다. 뜨거운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려 눈알을 쓰리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발 대신 두 팔이 남아 있는 한 이를 악물고 기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기었다. 그것이 설사 다가오는 화염의 길이 있을지라도 난 기었을 것이다. (『미개인』, 288~289쪽)

두 작품의 주인공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정반대다.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미감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박이라는 사내와 맞서 싸우다가 모래밭에 쓰러진 「미개인」의 주인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과거 베트남전에서 부상당하여 후송되었을 때 느꼈다는 “다리는 잃어도 생명은 얻었다는 실감”(289쪽)을 떠올리며 “기묘한 세계”(289쪽)에 절대 동화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반면 「타인의 방」의 주인공은 쉽게 포기한다. 그도 처음에는 기어서라도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막상 온몸이 굳어져 오는 것을 발견하고서 곧장 체념해 버린다. 이러한 체념은 그가 이미 물건들과 “공범자가 되고 싶은 욕망”(165쪽)을 느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타협으로 보인다.

작가 최인호는 이처럼 부동산 열풍 또는 물질적 욕망과 연결된 두 편의

작품을 거의 동시에 쓰면서<sup>79)</sup> 한 작품에서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생명을 지키는 길을, 다른 작품에서는 쉽게 포기하고 타협함으로써 끝내 자신의 존재마저 잃어버리는 길을 제시하였다. 집필 중이던 「미개인」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급하게 「타인의 방」을 쓰게 되었다는 집필 상황을 고려할 때<sup>80)</sup> 두 작품에서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크게 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다리부터 굳기 시작해서 결국 하나의 물건으로 변해버리는 「타인의 방」의 결말은 관습의 세계에 대한 수락<sup>81)</sup>, 고립된 삶을 극복하려는 자기 환상의 포기과 환멸<sup>82)</sup>, 허무주의<sup>83)</sup>, 병적인 도피<sup>84)</sup>에 그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미개인」이 예시하는 “진정한 용기” 곧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대응”<sup>85)</sup>을 쉽게 포기할 때 발생하는 비극과 위협에 대한 경고와 비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곧 「타인의 방」의 결말은 고독 속에서 사물화의 유혹에 타협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존재를 잃고 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sup>86)</sup> 이렇게 볼 때 당시 대중이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화려한 최고급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타인의 방」은 소유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인물이 그러한 믿음에 균열이 생긴 것을 계기로 주인에서 물건(소유물)으로 전도되어 마침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경제개발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적 확대를 비판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79) 「미개인」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나서 밤을 새워 「타인의 방」을 썼다는 최인호의 회고를 보면 「타인의 방」의 결말을 먼저 쓰고 나서 「미개인」의 결말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3장 참고.

80) 3장 참고.

81) 김현, 앞의 글, 311쪽.

82) 김현, 「재능과 성실성 - 최인호에 대하여」, 최인호, 『잠자는 신화』, 예문관, 1974, 309~311쪽.

83) 김치수, 앞의 글, 153쪽.

84) 이동하, 「도피와 긍정」, 최인호, 『가면무도회』, 민음사, 1983, 335쪽.

85) 성민엽, 앞의 글, 248쪽.

86) 도시 공간의 권력 문제에 주목한 이평전은 최인호 소설 속 인물들이 패배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폭력적 질서를 노출시키는 효과를 거둔다고 분석하면서 “치열한 현실 인식이 부족한”, ‘세계와 거트 화해를 시도했던 작가’라는 최인호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평전, 앞의 논문, 198쪽. 이 견해는 최인호의 소설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타인의 방」에 한정해서는 이 글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 5. 결론

지금까지 최인호의 「타인의 방」에 나오는 아파트에 관하여 작품 발표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논의에서는 작품에 나오는 아파트를 근대 도시의 전형적인 주거형태이자 현대성의 표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작품 속 아파트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고독감, 불안감, 허무 의식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면모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배경이자 소재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작품이 발표된 1971년 초의 상황은 아파트 보급률이 60%를 넘고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된 오늘날 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작품이 발표될 당시는 전체 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채 1%에도 미치지 못한 시점으로 아파트 자체가 희귀하고 생소할뿐더러 일반 대중들의 아파트 거주 경험 또한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더구나 당시의 아파트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아파트와 비교할 때 기능이나 형태 면에서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작품 발표 시점에서 작가와 독자들이 경험하고 인식한 아파트가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아파트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면 당시의 아파트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검토하는 작업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고 작가의 의도를 확인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은 출발하였다.

우선 1971년 초를 기준으로 작품 속에 나오는 아파트가 어떤 종류의 아파트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당시 서울에 건설된 아파트는 시민아파트, 서민아파트, 맨션아파트 등이 있었으며 이들 아파트는 최인호가 1970년대 쓴 다른 작품에도 종종 언급되거나 묘사되고 있어 「타인의 방」의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특정하기 위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차례대로 시민아파트, 서민아파트, 맨션아파트를 주택건축사나 주거생활사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욕실, 거실, 부엌 등 아파트 공간의 구조와 활용법, 난방과 온수 공급 등 시설 및 설비의 특징, 그리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생활 습관 등을 「타인의 방」에 나오는 아파트와 비교하였으며, 작품 속에 나오는 아파트는 맨션아파트라는 결론을 내렸다.

「타인의 방」이 발표될 당시 맨션아파트는 평균적인 아파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맨션아파트는 한국 아파트 건설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고급화를 추구한 최초의 아파트로서 세대 면적의 증가, 설비 및 공간 구조의 혁신 등이 이루어져 사실상 오늘날 아파트의 기본 모델을 확립했다고 평가된다. 아파트 생활 자체가 새롭고 낯설기만 한 1971년 초의 시점에서 다른 아파트와는 질적 수준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를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적 생활을 그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각별한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이어진다. 이 글에서는 작가 최인호가 「타인의 방」을 집필할 당시 중편 「미개인」을 완성하려고 하다가 새로운 작품을 쓰기로 마음을 바꾸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두 작품의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두 작품 모두 1970년대 초 부동산 열풍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점에서 「타인의 방」 역시 「미개인」과 마찬가지로 경제개발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 물질주의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소설적 반응일 수 있다.

한편 맨션아파트는 당시의 일반 대중에게는 강렬한 욕망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맨션아파트는 그때까지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표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맨션아파트에 관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타인의 방」에도 이어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작품 속 묘사된 아파트의 실내 풍경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평범한 아파트 생활에 가깝지만 당시로서는 최첨단, 최고급의 이미지로 포장되어 대중들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강렬한 욕망의 대상이었다. 많은 물건과 가구들로 둘러싸인 아파트 실내에서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주인공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들에게 선망과 질시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욕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곧 「타인의 방」에서 아파트는 욕망의 대상으로 의미화되고 있는데 아파트가 일레로 아내의 육체에 비유적으로 동일시되는 것은 아파트가 단순히 배경에 그치지 않고 주인공의 욕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인공의 욕망은 인락한 휴식에 대한 갈망으로 수렴되는데 현신적인 양치인 동시에 요염한 요부라는 이중적 이미지의 아내를 향한 욕망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주인공의 욕망은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 곧 아파트=아내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의 주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아파트, 물건, 아내의 주인(소유자)임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인물이다. 이때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전제로 한 주종관계로 설정된다. 바로 이러한 주종관계가 작품의 결말과도 연결된다.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했던 아내가 자신에게 속임수를 쓰고 있었음을 알아차린 순간 주인공과 아내, 물건, 아파트 간의 주종관계는 역전되고 결국 그는 물건의 지위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작품 후반부에서 물건들의 모반이 일어나고 급기야 주인공이 물건으로 변해버리는 모습은 그가 주장하던 독점적 소유권에 생긴 균열이 주체의 와해로 이어진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다리를 쓸 수 없어 위기에 놓이는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는 「미개인」의 결말과 비교할 때 「타인의 방」의 결말은 현실과 타협하여 자신의 존재마저 잃어버리는 길에 대한 비판과 경고로 해석된다. 결국 「타인의 방」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통해 욕망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은 인물이 그러한 믿음이 흔들린 것을 계기로 주인에서 물건으로 전락하는 결말을 통하여 1970년대 초반 물질적 욕망의 급격한 확산을 비판한 작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1. 자료

- 최인호, 『타인의 방』, 『문학과지성』, 1971 봄호.  
 \_\_\_\_\_, 『우리들의 시대(상)』, 예문관, 1975.  
 \_\_\_\_\_,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여백, 1996.  
 \_\_\_\_\_, 『미개인』, 『타인의 방』, 문학동네, 2002.  
 \_\_\_\_\_, 『나는 나를 기억한다』, 여백미디어, 2015.  
 『경향신문』, 『매일경제』, 『조선일보』

### 2. 단행본

-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20년사』, 대한주택공사, 1979.  
 \_\_\_\_\_, 『대한주택공사 30년사』, 대한주택공사, 1992.  
 박철수, 『아파트』, 마티, 2013.  
 \_\_\_\_\_, 『한국주택 유전자2』, 마티, 2021.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모음, 2011.  
 발레리 즐레조, 『아파트 공화국』, 길혜연 역, 후마니타스, 2007.  
 성민엽, 『문학의 빈곤』, 문학과지성사, 1988.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3)』, 한울, 2003.  
 \_\_\_\_\_,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1)』, 한울, 2005.  
 \_\_\_\_\_,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2)』, 한울, 2005.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차경아 역, 까치, 1996.  
 우찬제, 『불안의 수사학』, 소명출판, 2012.  
 장림중·박진희,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 효형출판, 2009.  
 전남일, 『한국 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0.  
 \_\_\_\_\_, 『집』, 돌베개, 2015.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옥,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전남일·양세화·홍형옥, 『한국 주거의 미사사』, 돌베개, 2009.

### 3. 논문

- 강유진,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집과 도시의 공간성 연구』, 『우리문학연구』 55, 우리문학회, 2017.7.  
 김병익, 『60년대 의식의 편차』, 『문학과지성』, 1974 봄.  
 김병익, 『중산층의 삶과 의식』, 『지성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2.  
 김영성, 『1960-70년대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문화정치학-최일남, 이동하, 최인호의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2009.3.  
 김인경,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서사 전략의 양기성 연구-조세희, 최인호, 이청준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2008.4.  
 김정남, 『도시 주거공간의 비장소성과 단자적 의식의 문제-최인호의 ‘타인의 방’과 채영주의 ‘도시의 향기’를



-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5, 한민족문화학회, 2019.
- 김종욱,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환상과 정치적 무의식-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8, 2013.
- 김주연, 「최인호의 관능이 의미하는 것」, 『타인의 방』, 예문관, 1973.
- 김치수, 「개성과 다양성」, 『문학사상』, 1982.
- 김 현, 「초월과 고문-한 소설가의 세계인식에 대하여」, 『문학사상』, 1973.4.
- \_\_\_\_\_, 「재능과 성실성-최인호에 대하여」, 최인호, 『잡지는 신화』, 예문관, 1974.
- 안남연, 「최인호 작품과 현 사회 인식의 상관적 관계」, 『한국문예비평연구』 1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2.
- 오창은, 「도시 속 개인의 허무의식과 새로운 감수성-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32, 중앙어문학회, 2004.12.
- 이동하, 「도피와 긍정」, 최인호, 『가면무도회』, 민음사, 1983.
- 이수정, 「현대소설의 도시 이미지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3.
- 이평전, 「현대소설에 나타난 도시 공간의 위상학 연구-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9.
- 이희경, 「도시 문명에 갇힌 인간 소외와 상실감-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15, 동서언론학회, 2012.2.
- 채호석, 「억압된 것의 귀환」, 『문학사상』, 2000.3.
- 황도경, 「물화의 공포와 유혹-최인호의 「타인의 방」」, 『문학사상』, 1999.3.

## The apartment in Choi In-ho's "Stranger's Room"

Chang, Du-yeong\*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the apartment in Choi In-ho's "Stranger's Room" and, based on this, to examine the author's intentions and themes of the work. Existing studies on "Stranger's Room" have generally regarded the apartment as a typical form of residence in modern cities and an expression of modernity. However, the social situation in 1971 when the work was published was quite different from today. The apartment was a new and unfamiliar form of housing, with a prevalence rate of less than 1%, and the spatial structure and functions of apartments were also distinctly different from today's apartments. First of all, this paper examined what kind of apartment is the apartment in the work. This paper compared the apartments in the work with Citizen Apartment, Common people's Apartment, and Mansion Apartment by referring to data on architectural and residential history, an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apartment in the work was Mansion Apartment. Mansion apartment was the finest apartment of the time, which was greatly differentiated in quality from existing apartments in terms of space size and facilities. Therefore, it is presumed that the writer who used the mansion apartment as the subject had a different intention to write than to draw the average daily life of urban people. Since "Stranger's Room" was a work that the Choi In-ho changed his mind while trying to complete "The Uncivilize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ommonalities between the two works.

---

\* assistant professor, Ajou University

The two works are commonly linked to the real estate craze of 1970, and it is assumed that the author's handling of mansion apartment has a certain relationship with the rapid spread of materialism in the early 1970s. In the works, apartment is signified as objects of desire. This seems to be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the mansion apartment, which was strongly desired by the public at the time, in the work. The apartment scenes depicted in the works seem to depict ordinary apartment life by today's standards, but at the time, they were objects of envy and jealousy that strongly stimulated the public's desire to own an apartment. Meanwhile, the main character is a person who wants to confirm his existence by claiming exclusive ownership of the object he desires, that is, the apartment and his wife. The status as the owner he claimed could be established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was understoo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 and the slave. Therefore, the moment he realized his wife's trick, his status as the owner was bound to be threatened rapidly. The ending of the fiction, in which the main character is transformed into an object due to a rebellion of objects, is interpreted as the crack in exclusive ownership he claimed eventually leading to the collapse of existence. In addition, when referring to the ending of “The Uncivilized”, the ending of “Stranger’s Room” can be read as criticism and warning of compromise with reality. Therefore, “The Stranger's Room” can be seen as a work criticizing the excessive material desires prevalent in the early 1970s by showing a person who believed that his desires could be achieved through what he owned falling from the status of the owner to the status of the object.

**Key words** : Mansion Apartment, Economic Growth, Real Estate, Material Desires, Possession, Existence